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이 건 호[†]

강 혜 자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강간통념 수용도에서 성차와 학년차가 있는지, 성역할 유형에 따라서 강간통념 수용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강간통념 수용도와 음란물 접촉은 상관이 있는지 등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남녀 중, 고, 대학생 723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경향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성별과 학년별로 강간통념 수용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였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강간통념의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유형별로는 강간통념 수용도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성 남학생들의 강간통념수용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음란물 접촉의 양은 남자 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았지만, 강간통념과 음란물 접촉의 상관은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상황에서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성교육 기회의 확대로 점차 잘못된 강간통념이 수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으며, 남성성이 강한 남자들과 특히 남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기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강간통념, 성역할 태도, 음란물

[†] 교신저자 : 이건호,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E-mail : tathagata@chonbuk.ac.kr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는 일반 상식을 뛰어 넘을 정도로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 12개국 중 성범죄 발생률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강간 범죄 신고 숫자도 1960년대 1,111건에서 1990년대 말 7,000여건으로 30여년 사이에 무려 7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범죄 백서, 1997). 성범죄는 피해자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특수한 종류의 범죄이며(Jane, 1986), 이로 인해 피해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거나 경찰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Bowker, 1979).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성범죄의 경우 그 실제 발생률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범죄의 증가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 전통과 성에 대한 남녀의 상이한 이중적 가치규범 등에 기인한 성문화의 왜곡을 들 수가 있다. 더욱이 우리의 성문화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성개방의 물결, 성의 상품화 및 향락 산업의 만연으로 한층 더 변질되고 있다(고행자, 1999). 대중 매체를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는 성관련 정보는 그 왜곡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선정성이 높은 음란물들은 성적 쾌락주의를 부추기는 한편 '남성적' 성을 과장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성문화를 반영하는 한 가지 형태로 강간에 대한 통념을 들 수 있다. 강간 통념은 강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과 틀린 생각이다(김선영, 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은 그 사회의 성문화나 여성에 대한 인식, 여성의 일반적 지위, 폭력에 대한 반응 양식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과의 관련 하에서 형성된다. 즉 개인은 남녀의 비대칭적 성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합리화, 이중적인 성규범 등과 더불어

어 강간통념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렇게 수용된 통념은 강간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강간 범죄를 은연중에 정당화하여 강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강간에 대한 통념들은 그것이 기초한 사회적 및 문화적 조건들과 더불어 해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통념들의 형성 및 수용조건과 관련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문화의 왜곡을 부추기는 음란물 접촉과 강간통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남녀의 성역할과 강간통념 수용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발달적 측면에서 성적 관심의 증대에 따른 음란물 접촉의 양상 및 음란물 접촉과 성 개념, 특히 강간통념 수용도 간의 관계에 대한 양상을 성차와 학년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강간통념의 내용, 결과, 성역할 태도와 강간통념의 관계 및 청소년 음란물 접촉의 양상과 영향들에 관해 간략히 개관하기로 한다.

강간에 대한 여러 가지 통념들이 공유하는 핵심적 내용은 '강간은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라는 것이다(김선영, 1989). 이를 기초로 다른 형태의 강간통념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강간이 일어나게 된 것에는 피해자 책임도 크다', '강간을 억제하려면 매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은 피할 수 있다'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왜곡된 통념은 성폭력 행위를 남성의 본능으로서 합리화하고, 강간 범죄의 책임을 피해 여성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또한 강간통념은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당연시하거나 성폭행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성폭행의 피해자가 원만한

사회성과 적응성을 키우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등과 같이 여성의 성욕이나 행동 등에 대한 그릇된 신념들은 여성을 성적 피해자로 만들뿐만 아니라, 성적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 편견을 만들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보다는 숨기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Brownmiller, 1975).

강간에 대한 통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나 직업을 초월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중에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간통념의 수용은 실제로 강간이 발생했을 때 판사나 변호사가 강간 피해자를 법 절차에 따라 대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경찰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 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하고 간호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oss, Goodman, Browne, Fitzgerald, Keita, & Russo, 1994; Warshaw, 1988). 결국 강간 사건과 관련된 그 주변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러한 통념의 틀에 따라 대처하게 된다.

강간통념은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계가 있다(이석재, 1999). 강간범들은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다. 이들은 일반인에 비해 강간의 원인을 피해자 여성측에 돌리고, 강간범죄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강하다(Feild, 1978). 이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강간에 대한 통념들이 죄의식 없이 강간을 저지르게 만들고, 쉽게 재범을 시도하게 하는 조건을 형성한다. 또한 강간범뿐만 아니라 일반 남성들도 성적으로 공격적인 남성일수록 강간통념의 수용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Koss, Leonard, Beezley, & Oros, 1981)

가 있어,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이 한 사회의 잠재적인 강간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영향요인을 탐구하는 연구들은 성욕과 같은 생리심리학적 요인(Ellis, 1991), 분노 등의 심리적 요인(Berkowitz, 1993),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적인 사고와 힘의 표현,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역할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Groth, 1979; Lisak, 1991; White & Koss, 1993) 등을 다루고 있다. 이들 중 최근에 성역할과 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집중하고 있다. 성역할이란 개인의 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주어지는 역할 특성이다. 성역할은 보통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심리적 특질로서 남성은 활동적이고 공격적, 경쟁적인 특질을, 여성은 수동적이고 이타적이고 양육적인 특질을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받고 사회화된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주어지는 책무로서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의 생산 활동을,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의 양육 및 가사노동을 고유한 사회적 책무로서 부여받는다(Pleck, 1975). 그러나 남녀 비대칭적 사회화 과정은 그릇된 성문화를 조장하여 강간을 빈발하게 하는 한 가지 원인이다(유재훈, 2000).

실제로 현 사회의 성문화는 남성은 성행위를 먼저 시작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갖도록, 여성은 무성(無性)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도록 하는 사회화를 통해서 형성되어 왔다. 이런 상태에서 성관계는 남성의 반강제적 시도로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남성들은 자신의 성역할 수행과 폭력적, 강제적 성관계를 혼동하게 된다(Russell, 1975). 이러한 비대칭적 성역할 사회화는 여성에게 수

동성, 의존성을 강조하여 여성을 피해자로 키워내는 역할을 하며, 남성에게는 경쟁적, 공격적 특질을 사회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남성 주도의 성역할에 대한 각본(scripts)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이성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다(Muehlenhard & Linton, 1987).

성역할 태도와 강간통념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강간범이나 조사대상인 대학생 가운데 성폭력을 해보았거나 또는 체포되지 않을 경우 강간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른 남자들보다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였다(Malamuth, 1981). Burt(1980)의 연구에서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강간통념을 가지고 있고, 대인간 폭행을 수용하는 정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의 내면화, 특히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는 강간통념의 예언변인임을 밝혔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적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일수록, 데이트 중의 강간이나 애인 사이의 강간을 믿지 않는다고 나타났다(Klemmack & Klemmack, 1976), 성 고정관념화되고 여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을 깊이 수용하고 강간에 대해 더 허용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Burt, 1980).

국내 연구에서는 김선영(1989)이 강간의 예방과 대처에 관여하는 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강간통념의 수용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 태도와 폭력 허용도는 둘 다 강간에 대한 통념 수용도에 대하여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석재(1999)의 연구에서도 강간통념 척도가 대인관계에서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 성역할 고정관념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Bem(1974)의 성역

할 척도에서 남성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성격 특성을 남성적으로 볼수록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였고, 성 관련 행동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석재, 최상진, 2001).

유재훈(2000)의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간통념, 성역할 태도 및 비행 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서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했으며, 학년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 유형별(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 강간통념 수용도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가 높았으며, 남성성 유형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여성성 유형이 가장 낮게 나왔다. 또한 강간통념과 비행 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강간에 이르게 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역할 태도는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성역할 태도와 강간통념 수용도 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둘 간의 상관을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정 성역할 유형별로 강간통념 수용도가 일관되게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면 성역할 유형별 성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비대칭적 성역할 사회화 못지않게 성폭력에 대한 음란물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급증하고 있는 음란매체의 문제는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더욱이 성관련 상업물의 음란성이 특별히 문제되는 이유는 Kinsey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 흥미가 거의 최정점에 도달하는 기간이며,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음란물의 접촉과정에서 얻은 성에 관한 정보로 남성과 여성의 성욕에 대한 왜곡된 성적 사회화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희, 1996). Malamuth와 Check(1983)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 경험이 적은 남자들의 경우에는 강간장면이 더 많은 흥분을 유발시켰다. 이 역시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의 성적 자극물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한 연구(김미경, 2000)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약 80% 정도가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의 50%는 음란 출판물을 통해서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성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대체로 음란매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준현, 1997).

남학생의 경우 음란매체의 경험이 성적 충동이나 고민을 증가시키고(김미경, 2000), 성충동을 강화하며, 이러한 충동의 강화에 의해 청소년 비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한우, 1990). 이것은 이명화(199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녀는 음란매체의 영향을 좀 더 세분화한 결과, 음란매체 접촉, 성 갈등 정도, 성 행동 경험에서는 역시 고등학교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또한, 매체접촉 경험이 증가할수록 성

갈등과 성 비행은 증가하고 성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반면에, 올바른 성 지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회적 지지량은 적고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성 비행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란물과 성의식, 성적 태도와의 관계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해서 성의식, 성적 태도 면에서의 허용성, 성 행동, 성 비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미순, 2000; 최수일, 1996).

이처럼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성에 관한 음란물 접촉의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음란물의 접촉 경험은 사회 일반의 성 고정관념과 연관되어 있으며, 성욕 지향적인 남성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집단들의 또래 문화 속에서 성범죄가 학습, 실행,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와 성폭력과 구별이 불분명해진다고 밝혀졌다(박현이, 1996). 김경희(1996)의 연구에서는 음란물이 '강간통념'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란물에 나타나는 성적 노골성과 폭력성 및 성적 공격성의 내용이 '강간통념'을 정당화시킬 수 있고, 성차별적인 여성 종속적 관념을 강화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이성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결국, 음란물 접촉은 청소년들의 성의식에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와 그릇된 성 지식과 성태도를 조장하게 되고, 또한 사회 일반의 성 고정관념과 연관되어, 성욕 지향적인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남성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성관계와 성폭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직접적인 성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

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발달 특성상 청소년들은 성적 관심과 호기심이 폭증하는 시기로서, 음란물 접촉의 영향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음란물 접촉의 영향으로 왜곡된 성개념의 수용과 일탈적 성행동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연령이 적을수록 더 민감할 것이고 연령과 학년의 증가에 따라 성교육 및 성관련 직간접 경험의 확대에 힘입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발달적 측면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강간통념은 잘못된 성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성역할 태도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란물 접촉은 여러 가지 부정적 성의식, 성행동 및 강간통념과 유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증가 추세에 비해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욱이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강간통념 수용도에서 성차, 학년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성역할 유형에 따라 강간통념 수용도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강간통념 수용도와 음란물 접촉은 상관이 있는가?

방 법

조사 대상

표 1. 조사대상의 학년, 사례수 및 평균연령 표준편차)

학교	성별	사례수	평균 연령
중학교	남	126	12.06 (4.81)
	여	118	13.31 (2.58)
고등학교	남	114	16.35 (2.27)
	여	120	15.68 (2.96)
대학교	남	118	20.27 (3.76)
	여	127	19.58 (1.72)
전 체		723 (남자 358명 / 여자 365명)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중학교 2학년생 4개 학급, 고등학교 2학년생 4개 학급 및 대학생 250명이었다. 총 741부의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불성실 응답자와 무응답자 18부를 제외한 72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척도와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강간통념 수용도 평가 척도

강간통념 수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석재 (1999)가 번안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문항은 총 20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Likert 형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최종 선정된 각 문항의 점수는 전체 문항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 = .33$ 에서 $.67$ 까지의 범위), 이 척도의 내적 일치는 $.87$ 로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이석재, 1999).

이석재와 최상진(2001)은 이석재(1999)의 척도를 요인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강간통념 척도는 총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요인은 전체 강간통념 척도 점수의 변량 가운데 62.9%를 설명하였다. 각각의 하위 요인 중에서 요인 1(8개 문항)의 내용은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요인 2(4개 문항)는, 강간 피해자는 저소득 가정 출신임, 피해자의 학대받은 경험, 피해자의 성욕, 성관계에 대한 평판 등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피해자의 성경험’으로 해석했다. 요인 3(3개 문항)에는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기고’, ‘강간을 보고하는 여성은 강간당하기 이전에 성경험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강간당하는 상황을 조성한다’ 등의 통념이 포함되었다. 요인 3은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 조작’으로 해석되었다. 요인 4에는 여성의 특정 행동들이 곧 성을 허락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통념과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통념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이러한 통념들은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간통념의 내적 일치는 .93으로 높게 나왔고 4개 하위 요인들의 내적 일치도와 음란물 접촉 항목의 내적 일치도들도 각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석재, 최상진 2001).

성역할 태도 평가 척도

성역할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진경(1990)의 한국인 성역할 검사(Korea Sex-Role Inventory: KSRI)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초로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Bem이 고안한 성역할 검사 제작 방식에 따라 남성성을 측정하는 20문항, 여성성을 측정하는 20문항, 남성성이나 여성성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성향(긍정성)을 측정하는 20문항 등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는 질문지의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 상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게 된다. 척도는 Likert형 7점 척도로서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로 되어 있다.

채점은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 method)을 채택하여 각 개인의 남성성 문항 20개의 평균값과 여성성 문항 20개의 평균값으로 전체 집

표 2. 한국 성역할 검사 문항 구성

측정 변인	문 항 번 호	문항수
남성성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20
여성성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20
긍정성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20

(-) 표시된 문항은 도치 문항임(출처: 정진경, 1990)

단에서 중앙치를 계산한다. 누락된 항목이 있을 때에는 그 항목은 빼고 기재된 항목의 수로 나눈다. 그리하여 남성성 여성성 점수 모두가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성 집단으로, 여성성이 중앙치 이상이고 남성성이 중앙치 이하이면 여성성 집단으로, 둘 다 중앙치 이하이면 미분화 집단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정진경(1990)에 의하면, 남성성, 여성성 각각 .91, .84 이었고 윤정혜(1991)의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척도에 서 각각 .89와 .86 으로 산출되었다. 한국형 성역할 검사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유재훈, 2000에서 재인용).

음란물 접촉 빈도 측정

음란물의 접촉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평소에 음란물(성인만화, 성인영화, 인터넷 성인 동영상, 포르노 사이트, 포르노 비디오, 포르노 잡지)을 얼마나 즐겨보는 편인지'를 Likert형 7점 척도(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에 평정하게 하였다.

절차

조사는 가능한 한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급과 강의실에 들어가서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급은 불가피하여 해당 학교 교사에게 의뢰하였다.

자료 처리 및 분석

SPSS/PC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변인들에 대해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성별과 학년에 따라 강간통념 수용도에

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도와 성역할 유형 간의 관계와 강간통념 수용도와 음란물 접촉 정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계수를 계산하였다.

결 과

강간통념 수용도의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성별과 학년별 강간통념 수용도와 하위 요인별 수용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전체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를 전체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남학생들의 강간통념 수용도는 여학생들의 강간통념 수용도에 비해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4개의 하위 강간통념 수용도에서도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폭행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더 컸고, 강간 피해자는 이전에 성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란성이 높고 강간을 허위로 조작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많이 동의하였고,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를 나타내는 통념에 더 많이 동의하였다(그림 1 참조).

강간통념 수용도를 성별과 학년별로 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717)=105.94, p<.01$. 이는 전체적으로 남자($M=2.95$)가 여자($M=2.18$)보다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다는 결과이다. 학년의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717)=30.47, p<.01$. Scheffe 사후검증 분석 결과, 중학생

표 3. 성별과 학년별 강간통념 하위요인의 수용도 평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남	여	t	남	여	t	남	여	t	남	여	t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3.44 (1.16)	2.80 (1.02)	4.59 **	3.60 (1.36)	2.54 (.99)	6.84 **	3.05 (1.15)	2.18 (.95)	6.38 **	3.36 (1.24)	2.50 (1.02)	10.23 **
피해자의 성경험	3.11 (1.28)	2.48 (1.11)	4.08 **	2.36 (1.16)	1.95 (.88)	3.06 *	2.04 (.86)	1.67 (.75)	3.58 **	2.52 (1.20)	2.02 (.98)	6.05 **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3.23 (1.22)	2.40 (1.08)	5.63 **	2.97 (1.30)	1.98 (.81)	7.08 **	2.47 (1.04)	1.66 (.67)	7.29 **	2.90 (1.23)	2.00 (.91)	11.11 **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2.54 (1.22)	1.89 (.95)	4.63 **	2.73 (1.20)	1.88 (.90)	6.07 **	2.38 (1.00)	1.66 (.67)	6.60 **	2.55 (1.15)	1.81 (.85)	9.79 **
전 체	3.19 (.99)	2.50 (.83)	5.90 **	3.06 (1.09)	2.18 (.73)	7.30 **	2.60 (.89)	1.87 (.63)	7.44 **	2.95 (1.02)	2.18 (.77)	11.56 **

* $p < .01$, ** $p < .001$

※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이하에서도 동일함.

수치가 높을수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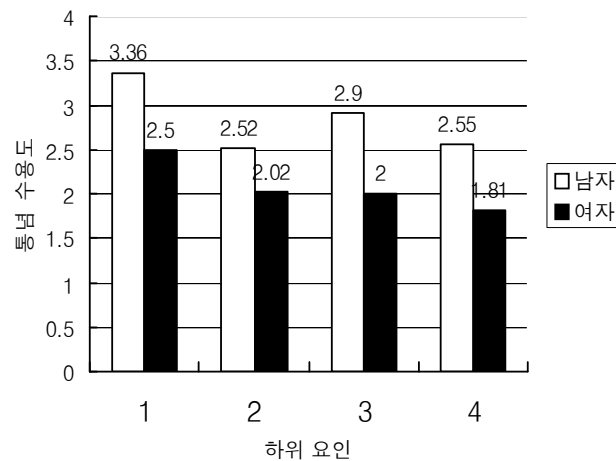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강간통념의 하위 요인별 수용도

($M=2.85$)은 고등학생($M=2.61$)과 대학생($M=2.22$)보다 강간통념 수용도가 더 높았으며, 고등학생($M=2.61$)은 대학생($M=2.22$)보다 강간통

념을 더 많이 수용하였다($p < .01$). 즉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표 4. 성별과 학년별 강간통념 수용도의 변량분석 요약표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후검증
성 별	105.94	1	105.94	139.83*	
학 년	46.17	2	23.09	30.47*	a> b> c
상호작용	1.24	2	.62	.82	
오 차	543.22	717	.76		

* $p < .01$ 사후검증: a=중학생 b=고등학생 c=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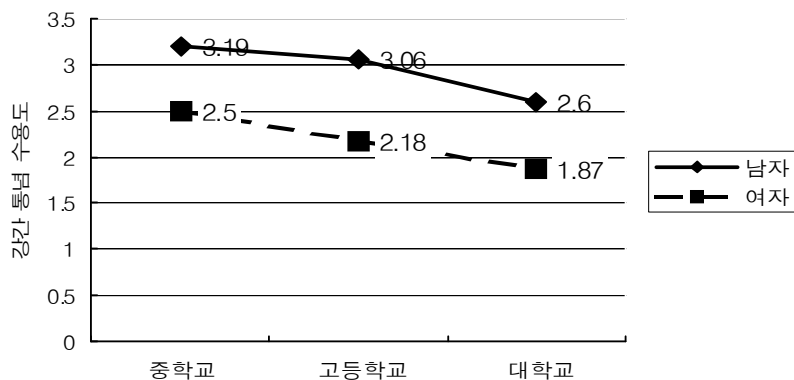


그림 2. 성별과 학년별 강간통념 수용도의 평균 점수

성별과 성역할 유형에 따른 강간통념 수용도의 차이

성역할 유형에 따른 강간통념 수용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 학생들을 네 가지 성역할 유형으로 구분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전체 723 명의 조사대상자 중에 미분화 유형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성성 유형, 여성성 유형, 남성성 유형 순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성별과 그들의 성역할 유형에 따른 강간통념 수용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성역할 유형에 따라서 강간통념 수용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표 5. 성별과 성역할 유형별 조사대상의 분포

	남성성 유형	여성성 유형	양성성 유형	미분화 유형
남학생	52	68	114	124
여학생	58	85	104	118
전 체	110	153	218	242

(단위: 명)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3, 715) = 1.41, n.s.$.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남성성 유형($M=3.30$)이 양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각각, $M=2.93$, $M=2.83$, $M=2.90$)에 비해서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

표 6. 성별과 성역할 유형별 강간통념 수용도의 평균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	전체
남 자	3.30 (1.09)	2.83 (.91)	2.93 (1.10)	2.90 (.95)	2.95 (1.02)
여 자	2.15 (.85)	2.24 (.68)	2.14 (.82)	2.17 (.77)	2.18 (.77)
전 체	2.70 (1.13)	2.50 (.84)	2.55 (1.05)	2.55 (.94)	

※ 수치가 높을수록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 여학생($M=2.18$)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남학생($M=2.95$)보다 낮으며, 각 유형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란물 접촉과 강간통념 수용 간의 관계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학생들의 음란물 접촉 경향에 대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표 7. 성별과 학년별 음란물 접촉 경향 점수의 평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 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음란물 접촉경향	2.13 (1.63)	1.53 (1.25)	1.84 (1.48)	3.57 (1.83)	1.71 (.91)	2.62 (1.71)	2.54 (1.11)	1.54 (.80)	2.02 (1.08)	2.73 (1.66)	1.59 (1.00)

※ 수치가 높을수록 음란물 접촉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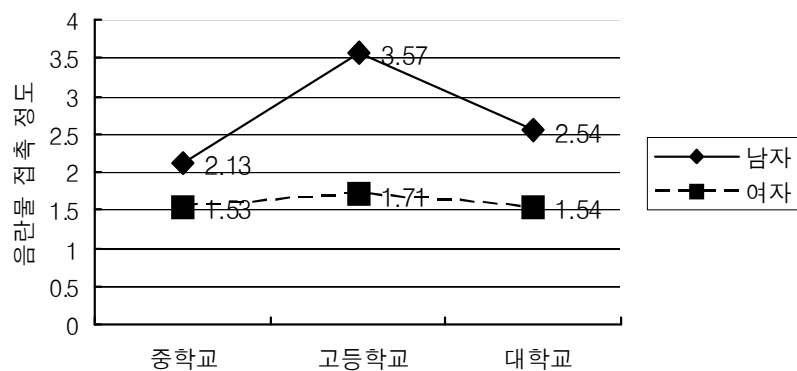


그림 3. 성별과 학년별 음란물 접촉 정도

표 8. 성별과 학년별 음란물 접촉 경향에 관한 변량분석 요약표

변량원	자승의 값	자유도	자승의 평균	F	사후검증
성 별	240.35	1	240.35	142.00*	
학 년	82.89	2	41.44	24.48*	b > c > a
상호작용	49.38	2	24.69	14.59*	
오 차	1213.60	717	1.69		

* $p < .01$ 사후검증: a=중학생 b=고등학생 c=대학생

표 9. 성별과 학년별 강간통념 수용도와 음란물 접촉경향 간의 상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음란물 접촉 경향	.44*	.00	.18	.16	.03	-.01

* $p < .01$

음란물 접촉에서는 전반적으로 고등학생($M=2.62$)의 음란물 접촉 점수 전체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과 학년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생($M=3.5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생($M=2.54$), 중학생($M=2.13$)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M=1.71$)이 대학생($M=1.54$)이나, 중학생($M=1.53$)과 비교해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 참조).

성별과 학년별로 음란물 접촉 경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란물 접촉에 대한 성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717)=142.00$, $p < .01$. 즉 남학생($M=2.73$)이 여학생($M=1.59$)보다 음란물 접촉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717)=24.48$, $p < .01$. Scheffe 사후검증 분석 결과, 고등학생($M=2.62$)은 대학

생($M=2.02$)이나 중학생($M=1.84$)보다 음란물 접촉 경향이 높았으며, 대학생($M=2.02$)은 중학생($M=1.84$)보다 음란물 접촉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다음은 성별과 학년별 강간통념 수용도와 음란물 접촉 경향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를 표 9에 요약하였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중학생에서는 음란물 접촉과 강간통념 수용도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r = .44$, $p < .01$),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각각 $r = .18$, $r = .03$, $n.s.$). 여학생의 경우에는, 세 집단 모두 강간통념 수용도와 음란물 접촉 경향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강간통념은 강간을 이해하는 방식의 하나로,

강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강간통념의 형성 및 확산과 관련한 요인들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형성된 강간통념이 나이가 들어도 쉽게 줄어들지 않음을 감안한다면(유재훈, 2000), 누구나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 정도와 강간통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측정하여, 강간통념 수용도에서 성차와 학년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또한 성역할 유형에 따라 강간통념 수용도의 차이가 있는지 및 강간통념 수용도와 음란물 접촉 경향 간에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23명의 중, 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경향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강간통념 수용도에서 각각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재훈(2000)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강간통념 수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 제한해서 해석한다면 학생 집단의 경우, 학년

이 높아지면서 성교육이나 기타 다양한 종류의 올바른 성관련 정보들을 접하면서 잘못된 강간통념이 다소 수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성역할 유형에 따라서 강간통념 수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역할 유형에 따른 강간통념 수용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유재훈(2000)과는 동일한 반면에 이석재(1999)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석재(1999)의 연구에서는 남성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 유형에 따른 강간통념 수용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부분적으로 남성성 유형의 사례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적은 데 기인했다고 추정된다. 실제로 남성성 유형의 사례수는 110명이었는데, 이는 여성성 유형(153명), 양성성 유형(218명) 및 미분화형(124명)에 비해서 가장 적은 수이다. 성역할 유형별 사례수를 유사하게 한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남성성이 높은 남학생들의 강간통념 수용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남성주도의 성역할에 대한 각본을 가진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Muehlenhard & Linton, 1987)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남성성이 강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강간통념을 수정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음란물 접촉 경향과 강간통념 수용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 중학생 집단에서만 두 변인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여학생이나 남자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달리 남자 중학생에서만 음란물 접촉과 강간통념 수용도의 상관이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남자중학생들

의 경우 고교생이나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감시가 많고 따라서 비교적 음란물 접촉은 적지만, 고교생이나 대학생에 비해 제대로 된 성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음란물을 접촉할 경우 잘못된 강간통념이 그대로 수용 내지 학습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음란물 접촉과 강간통념 수용도 간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가능하겠지만, 성폭력물의 시청은 여성에 대한 강압적 성행위를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만들고, 여성이 난폭한 성행위를 내심 즐긴다고 하는 그릇된 관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이석재, 1999; Malamuth와 Check, 1981, 한규석, 2002, P. 327에서 재인용).는 지적에 비추어 보면, 올바른 성교육의 기회가 적을 경우에는 음란물 접촉에 의한 강간통념의 학습 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남자의 경우 음란물 접촉 경향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과 대학생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학입시 준비로 인해 다른 여가활동에 투자할 정신적 및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반면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 접촉은 잠깐씩 비교적 자주 시도할 수 있고 그 효과의 긍정성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입시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데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음란물 접촉과 강간통념 수용도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고학년으로 갈수록 음란물을 접하더라도 이것을 강간통념과 연결시키는 경향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의 강간통념 수용도에 대한 해석과 유사하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 내에서의 성교육 및 기타 올바른 성정보를 접하는 경향이 증가될 수 있어서 음란물을 접촉하더

라도 강간통념을 덜 수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자중학생들과 달리 음란물 접촉과 강간통념 수용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강간통념이 강간에 대한 왜곡된 여성심리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남녀의 시각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즉 여학생들은 강간통념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신의 심적 경험에 비추어 사실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음란물 접촉을 하더라도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왜곡된 것임을 비교적 잘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강간통념에 관련된 여성심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통해 추측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곡된 통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남학생들도 고학년이 되면서 성교육을 통해 그러한 왜곡된 시각을 교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이 특정 지역의 학생들로 제한되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장래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조사대상을 포함시켜서 지역별 차이의 양상과 전체적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Marshall(1989)의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포르노물의 애독자임을 밝혀냈다(한규석, 2002). 또한 강간범들은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이들은 일반인에 비해 강간의 원인을 피해자 여성측에 돌리고, 강간범죄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강하다(Feld, 1978). 강간범뿐만 아니라 일반 남성들도 성적으로 공격적인 남성일수록 강간통념의 수용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

도 있다(Koss, Leonard, Beezley, & Oros,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수행자 집단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학생 집단의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음란물 접촉 경향을 측정함에 있어서 한 개의 포괄적 문항만 제시함으로써 측정적 정밀성이 부족했다. 또한 음란물을 '음란물(성인만화, 성인영화, 인터넷 성인 동영상, 포르노 사이트, 포르노 비디오, 포르노 잡지)'의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음란물 접촉의 경로나 상대적인 접촉량 차이 등의 양상을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별로 음란물 접촉 경향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음란물 접촉의 경로나 양상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음란물 접촉의 양이나 종류별로 강간통념 수용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성교육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주제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실시 절차상 익명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일부 학급의 경우 해당학교 교사가 질문지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는 데 다소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넷째, 남자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 비해서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 남자 중학생 집단에서 음란물 접촉과 강간통념 수용도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성교육이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들 및 중학교 남학생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사된다.

참고문헌

- 강미순 (2000). 고등학생의 컴퓨터 음란물 시청 실태와 성의식 성행동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행자 (1997). 고교생의 성 정보 매체 유형과 성 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준현 (1997). 정보화 사회에서 유해매체의 접촉 양태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 연구- 인쇄매체, 비디오, 전자매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1996).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경북 상주 지역 중, 고 남학생을 대상으로.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2000).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태도 및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전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이 (1996). 비행청소년의 여성관과 성폭력과 의 관계: 보호관찰 대상자(성폭력범)의 사례연구. 서강대학교 공안 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연수원 (1997). 범죄 백서. 법무부.
- 유재훈 (2000). 청소년의 강간통념, 성역할 태도 및 비행 행동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화 (1999).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 갈등에 성 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석재 (1999). 강간통념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 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한우 (1990). 청소년의 음란매체 경험과 성적 충동과의 관계: 성차 및 연령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최수일 (1996). 대중매체가 중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 Hill.
- Bowker, L. (1979). The criminal victimization of women.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4, 371-384.
- Brownmiller, S. (1975). *Against our will*.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Ellis, L. (1991). A synthesized (Biosocial) theory of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631-642.
- Feild, H. S. (1978).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s, crisis counse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56-179.
- Groth, N. (1979). *Men who rape*. New York: Plenum
- Jane, D. (1986). *Women on Rape*. New York: Thornes Publishing Group.
- Klemmack, S. H., & Klemmack, D. L. (1976). The social definition of rape. In Marcia J. W., & Stanley L. B.(Eds.), *Sexual assault the victim and the rapist*. Massachusetts, D.C.: Health and company(pp. 135-147.)
- Koss, M. P., Goodman, L. A., Browne, A., Fitzgerald, L. F., Keita, G. P., & Russo, N. F. (1994). *No safe haven: Male violence against women at home, at work, and in the communi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oss, M. P., Leonard, K., Beezley, K., & Oros, C. (1981).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sexually aggressive men*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 Lisak, D. (1991). Sexual aggression, masculinity, and father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6, 238-262.
- Malamuth, N. M. (1981). Rape proclivity among males. *Journal of Social issues*, 37, 138-157.
- Malamuth, N. M., & Check, J. V. P. (1981). The effects of mass media exposure on acceptance of violence against women: A field experi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 436-446.
- Malamuth, N. M., & Check, J. V. P. (1983). Sex role stereotyping and reactions to depictions of stranger versus acquaintance rape.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344-356.
- Marshall, W. (1989). Pornography and sex offenders. In Zillman, D., & Bryant J.(Eds.), *Pornography: Research advances and policy considerations*.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86-196.
- Pleck, J. H. (1975). The psychology of sex roles; traditional and new views. *Women and men*. Report of a workshop by Libby A. Carter and Anne Firor Scott with Wendy Martyna, New York: Praeger.
- Russell, D. E. H. (1975). *The politics of rape the victim's perspective*. New York: Stein and Day Publishers.
- Warshaw, R. (1988). *I never called it rape*. New York: Harper & Row.

1 차 원고 접수일 : 2005. 4. 30

최종 원고 접수일 : 2005. 8. 12

K C I

The Relations among Rape Myth, Types of Sex Role, and Exposure to Sexually Obscene Material

Geon-Ho Lee

Hye-Ja Ka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ried to explore relations among rape myth, types of sex role, and exposure of sexually obscene material. The specific purposes of this study were investigate (a) if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acceptance of a rape myth according to gender, school grades and types of sex role in participants, (b) whether the acceptance of rape myth are different by the types of sex role, and (c) whether the acceptance of rape myth is related with exposure of sexually obscene material. A total of 723 students in middle, high school, and university completed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le students accepted rape myth more than female students. In the level of male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ceptance of rape myth among three school students(middle, high school, and university). Secondly, types of sex role were not related with the acceptance of rape myth. Third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ir exposure of sexually obscene material and the acceptance of rape myth was significantly high in middle school male students.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rape myth, types of sex role, exposure of sexually obscene material.